

2021년 제39회 마로니에여성백일장 시 부문 심사총평

- 심 사 명 : 제39회 마로니에여성백일장 시 부문
- 심사일자 : 2021. 11. 5(금)
- 심사위원 : 박은정, 서정홍, 안미옥, 이병철, 이송희, 정끝별, 하린, 한명원(8명, 가나다순)

마로니에여성백일장이 올해로 39회를 맞았다. 그동안 수많은 여성 문인을 배출하며 한국 문학의 산실이 된 것은 물론 대학과 등단이라는 제도권 엘리트문학 바깥에서 문학의 외연을 넓히며 글쓰기의 대중화에 기여해왔다. 1983년부터 2021년 오늘까지 39년이 지나는 동안 ‘여성’이라는 함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모성으로 조건화된 몸의 내재성에 의해 협소한 사회적 의미에 갇혀 절대적 타자가 되어야 했던 여성들이 이제 해방을 외친다. 그런 의미에서 마로니에여성백일장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은 차별과 소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으로 세계를 지탱해온 헌신에 대한 기록이자 여성들 스스로 길을 내며 흘러온 거대한 강의 물결이다. 올해에도 뜨겁게 응모해준 모든 여성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일반글제와 특별글제 두 부문 모두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심사위원들은 괴로웠다. 시상 범위를 더 확대해달라고 시위라도 벌이고 싶었다.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평가가 엇갈릴 때는 정말 치열했다. 심사위원들끼리 서로 설득하고 유혹하고 그 안에서 지지여론을 형성하려 하는 등 심리전마저 벌여야 했다. 장원과 우수, 장려, 입선을 정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시적 개성들이 한 데 모였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잡아끈 몇 편의 작품은 꼭 언급해야만 하겠다. 먼저 일반글제 입선작 중 <어항의 무게>는 우리 사는 세상을 ‘어항’으로 비유하며 어항 안의 여러 소품들을 인간관계의 다양한 양상으로 읽어낸 ‘발견의 눈’이 깊었다. <엄마의 의자>는 엄마라는 대상을 하나의 의자로 비유한 상상이 돋보인 작품이다. 상상을 보편적으로 설득하기가 힘든데, 자연스럽게 언술하는 힘이 돋보였다.

장려상 수상작 중 <우리만의 노랑>은 “세탁기가 오래된 노랑을 곱씹는다”와 같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빨래라는 일상적 행위를 컬러풀한 색채들이 어우러지는 한 편의 영화로 만들면서 엄마의 시간, 여성의 시간을 역주행하는 비약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의자가 된 아이>는 의자에 앉아 여러 폭력과 상처를 경험하다 의자가 되어버린 아이(여성)를 통해, 약자로서의 아이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폭력을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녔다.

특별글제에서는 코로나 판데믹을 ‘가면무도회’로 형상화한 <가면무도회>가 만장일치로 최우수 작품에 뽑혔다. 이런 경우에 심사자들도 편하다. 읽다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작품이지만, 또래들과의 자유로운 교류가 제한된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게 했다. 마스크 착용을 가면무도회 놀이라고 아이에게 말한 엄마의 재치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연상시킨다. 일상의 소소함에서 빛나는 감동을 끌어 올린 예비 작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가 가장 치열했던 대목은 일반글제 장원을 가리는 순간이었다. 심사위원들은 <빛과 소통하는 방식>과 <선線>을 두고 ‘빛.소.방파’와 ‘선파’로 나뉘어 격하게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줌 화면 안에 모였지만 뜨거운 눈빛과 날카로운 비말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빛과 소통하는 방식>은 대상을 보는 세심한 시선 안에 감각적이고 안정된 문장의 흐름으로 일상의 이야기를 시로 확장시키는 미덕을 보여줬다. ‘소통’이라는 어려운 글제를 시로 가장 잘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한편 <선線>은 사춘기 시절 자아와 엄마의 나이가 된 자아가 각각 소환한 엄마를 통해 시간과 가족과 죽음을 성찰하고 있다. 개인적 삶의 장면들과 ‘엄마’라는 모성에 대한 연민을 유려한 문장과 물기 어린 감성으로 그려낸 수작이다.

심사위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의견을 모아 ‘엄마’라는 이름을 지닌 모든 여성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선線>을 장원에, <빛과 소통하는 방식>을 우수작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기로 했다. 두 분을 비롯해 모든 입상자들, 아쉽게 선에 들지 못한 분들에게 축하와 위로,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 이르지만, “문학이란 이렇게 현재의 절망을 견디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는 것이다”라는 한 심사위원의 말씀을 부족한 심사평과 함께 크리스마스 카드로 부쳐 드린다.